

전남 서부권

가을 축제

9~10월에 신안과 함평지역에서 가을 축제가 열린다. 가을 대표적인 꽃인 코스모스와 국화를 주제로 한 이번 축제는 가족단위 관광객들의 발길을 이끌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코스모스 길 걷고

▲ 신안 임자 '코스모스 축제' 9월 23일까지

신안군은 30일부터 9월 23일까지 임자도 신안 톨립공원의 사계절 공원을 위해 조성한 코스모스 단지에서 올해 처음으로 '코스모스 축제'를 연다. 이번 축제는 군에서 아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톨립생태공원과 대광해변, 코스모스 단지를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또 단지 내에는 코스모스와 다양한 조경수가 어우러져 가을의 아름다운 경치를 자아내고 있어 재충전할 수 있는 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shinantulip.co.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단지내에 유리온실 조경을 2013년 개장 목표로 준비 중에 있어 내년에는 실내에서 다양한 식물체험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함평 '국향대전' 10월26일~11월11일

'2012 대한민국 국향대전'이 오는 10월26일부터 11월11일까지 함평군 함평 엑스포공원에서 열린다. '국화향기 그윽한 풍요로운 함평 천지!'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국향대전은 승례문과 마법의 성 등을 형상화한 국화작품과 각종 국화조형물 1800여 점이 전시된다.

또 지난해 관광객에게 큰 호응을 얻었던 할머니 장터와 친환경 농·특산물 판매를 확대, 운영해 군민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함평군 관계자는 "대한민국 국향대전이 국화축제를 대표하는 명품축제인 만큼 다양한 연출과 작품으로 관광객에게 감동을 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황은희기자 sslee@



폭력 없는 학교 만들자

목포 경찰-영흥고 협약... '스쿨 폴리시제' 도입

'폭력없는 행복한 학교만들기'를 목표로 학교폭력 근절에 나서고 있는 목포 영흥고등학교(교장 이창균)가 '스쿨 폴리시(School police) 명에 담임교사 제도'를 도입,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제도는 1학년당 1명의 '스쿨폴리스 명에 담임교사'가 배정돼 학생들이 언제나 부담없이 부모나 교사들에게 말하기 어려운 학교폭력 관련 고민을 형사법적 접근에서 벗어나 1:1 상담을 통해 접근하고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영흥고는 최근 교내 유집기념관에서 학생과 교직원,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 위원, 경찰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목포경찰서 소속 이로파출소(소장 이인봉) 경찰관 16명을 '스쿨폴리스 명에 담임교사'로 임명하고 MOU를 체결했다.

'스쿨폴리스 명에 담임교사'는 앞으로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상담기법을 익히고 학생수준별 맞춤형 범죄 예방교실을 운영하는 등 학교폭력 없



목포 영흥고 이창균 교장(왼쪽)과 목포경찰서 이로파출소 이인봉 소장이 '폭력없는 행복한 학교만들기'를 위한 스쿨폴리스 명에 담임교사 임명 MOU를 체결하고 있다.

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적극 나서게 된다.

전남도교육청 이길훈 장학사는 "파출소와 관내 고등학교가 직접 연계해 '스쿨폴리스 명에담임'을 임명

하고 MOU를 체결한 것은 처음"이라며 "도교육청 차원에서 모범사례로 널리 알려 권장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김병민기자 dss6116@

농촌체험 1번지 '신안'

조개 캐고 옥수수 수확...수도권 발길 줄이어

농촌 전통테마마을인 신안군 비금면 용소리 '뽕배이 섬마을'이 도시인들의 농촌체험장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30일 신안군에 따르면 농촌체험을 하기 위해 서울·경기권을 비롯해 전국에서 가족단위 탐방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뽕배이 섬마을'은 여름방학 기간 동안 대도시 유치원 및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농촌체험을 통해 농업의 이해와 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마인드 함양 교육을 실시해 체험객들로 부터 호응을 받았다.

체험 프로그램은 농·어촌마을의 자연환경과 함께는 비금읍 돌레길 체험, 비금 염전체험, 바닷가 야간 햇불 개업이 체험, 모시조개 잡기, 고추·옥수수 등 농산물 수확체험 중심으로 이뤄졌다.

특히 카약·보트 등 해양레포츠를 통해 도시생활에 찾아있는 어린이들에게 농·어촌의 생활과 환경을 몸소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신안산림조합 금융업무 개시

신안군 산림조합(조합장 황권순)은 오는 9월 11일 목포시 옥암동 1003-6번지에 산림조합 금융 하당지점을 개설하고 본격적인 금융업무를 시작한다. 군 산림조합은 인구가 밀집하고 상권이 형성된 신도심 하당지역에서 상호금융 활성화를 위해 새롭게 하당지점을 개설했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함평도서관 '1:1 멘토링' 인기

함평군 공공도서관(관장 임종문)이 학습참고서 코너와 대학생 1:1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 호응을 얻고 있다.

군 도서관은 농·어촌 학생들이 방과후에도 시간제약없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종합자료실 개방시간을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연장해 학습참고서 코너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함평 교육지원청이 방학기간

동안 지역 출신의 우수 대학생 2명을 강사로 임용해 학생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멘토링 운영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1:1 멘토링은 효과적인 공부법, 학습노하우 공유 및 지도, 부모님과 친구들 간의 관계 조언, 고민 상담, 진로·진학·학교생활 상담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평가이다.

/서부취재본부=황은희기자 hwang@

신안 지역자활센터 '최우수기관'

신안군 지역자활센터가 보건복지부 주관 전국 지역자활센터 농촌기점을 개설하고 본격적인 금융업무를 시작한다. 군 산림조합은 인구가 밀집하고 상권이 형성된 신도심 하당지역에서 상호금융 활성화를 위해 새롭게 하당지점을 개설했다.

이번 평가는 전국 247개 시·군·구의 지역자활센터를 도시, 도·농복합, 농촌형의 유형별과 확대·표준·기본형 등의 규모별로 실시했다.

군은 참여자수, 자활성공률 등 성과, 자활공동체 지원, 사업단 운영, 지역사회 자원 활용 등의 성과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농촌 기본형 분야에서 상위 10%의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2850만원의 시상금을 받았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전북

새만금 산학 융합지구 내주 착공

전북 군산대에 새만금 산·학 융합지구가 들어선다. 군산대는 "산단단지과 대학·특성화·고교 등을 공간적으로 통합함으로써 근로현장을 생산, 교육, 문화가 어우러진 복합공간으로 재창조하기 위한 산학융합지구를 9월 4일 착공한다"고 30일 밝혔다.

군산대를 비롯한 4개 참여대학이 교육연구공간으로 활용하게 될 대학 캠퍼스관은 2013년 개강하며 내년 7월 완공되는 기업연구관에는 기업지원조직과 기업연구소 등 100개사가 입주할 수 있다.

산·학 융합지구는 고급 전문 인력 양성 등을 목표로 ▲근로자 평생학습 ▲연구개발(R&D) 연계 맞춤형 교육 ▲중소기업 역량강화 ▲산·학 융합교육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학교폭력 '발본색원'

도교육청, 773개 초·중·고 21만명 실태조사

전북도교육청이 도내 초·중·고교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도교육청은 초등 4학년부터 고교 3학년까지 총 773개 학교 21만여 명을 대상으로 9월 3일부터 26일까지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벌인다.

이전 조사는 전체 학교에 대한 학교폭력 실태를 파악해 효율적인 예방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설문지를 활용해 실시한다.

조사 문항은 학교폭력 피해·가해·목격(방관) 경험, 학교폭력 예방 교육 및 안전, 서울 문화 등 4개 영역에 총 15문항이다.

전북도 교육청 관계자는 "개인 정보 유출 우려와 조사 신뢰성 등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 서면조사로 대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볼라벤' 피해 183억원

도 잠정 집계...농산물 포함 안돼 더 늘듯

태풍 '볼라벤'이 휩쓸고 간 전북지역의 피해 규모가 183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30일 전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번 태풍으로 6명이 숨지고 재산피해액은 183억2400만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하지만 피해접수가 계속되고 있고 나파와 농작물은 재산피해에 집계되지 않아 전체 피해규모는 이를 훨씬

웃돌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제14호 태풍 '덴빈'에 의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볼라벤'의 영향으로 32만1000여 가구가 정전됐고, 전진주 케이비 20여km가 파손되면서 가입자 3300여명의 인터넷과 유선전화가 먹통이 됐다.

특히 농업시설 274ha가 강풍 피해를 입는 등 농작물 피해면적은 2700

ha를 넘어섰다. 한가위에 맞춰 출하를 준비중이던 사과·배 등 과수농가는 1778ha의 낙과 피해가 났고, 논과 밭 1785ha도 강풍 피해를 입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주택 615곳과 기업 79곳, 사회복지 시설 55곳이 파손됐고 가로수 2548그루가 쓰러지는 등 피해 규모가 갈수록 불어나고 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옆친데 덮쳐...

30일 14호 태풍 '덴빈'이 전북을 지나면서 정읍시 내장상동 도로에 물이 넘쳐나 긴급 복구가 이뤄지고 있다.

/연합뉴스

부안 누에타운 '자연사 과학관'으로

부안 누에타운이 교육과학기술부에 누에 및 곤충관련 자연사 전문과학관으로 최종 등록됐다.

이에 따라 교육·체험 프로그램 사업에 대한 국비 보조는 물론 다양한 교육·체험프로그램을 운영, 학생들의 과학기술 이해 증진과 함께 전문화된 과학관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됐다.

누에타운은 부지 7만6186㎡에 2층 규모의 건물 2동, 연면적 2310㎡로 누에곤충 과학관·탐험관·체험관의 총 3관으로 이뤄져 있다.

특히 체험관에는 최첨단의 인큐베이터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4계절 내내 누에의 일생 모드를 볼 수 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단신

전주 공설운동장서 내달 7일 한우 할인판매

전북도는 한가위를 맞아 한우고기 소비촉진을 위해 9월 7일부터 사흘간 전주 공설운동장에서 한우·단풍미인 한우·장수한우가 참여한 가운데 시종마다 20~30% 싸게 판다.

선물세트는 5만~25만원대다. 또한 9월 14일부터 2주간 고산농협·임실축협·고창농협·남원축협·장수농협에서 한우 알소고기를 최대 47%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군산시, 중앙로 공영주차장 무료 개방

군산시는 침체된 원도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9월 3일부터 중앙로(구 경찰서)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전면 개방한다. 시는 주차요원을 지속적으로 배치해 주차안내 및 홍보, 주차장 시설물 관리, 장기주차 통제로 주차회전율을 높여 시민들이 실효

성 있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지난 2004년 12월 조성된 중앙로 공영 주차장은 주차면적 5294㎡에 승용차 150대를 주차할 수 있으며, 2005년 1월부터 유료로 개방해 왔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전북 유아교육진흥원 오늘 개소

전북 유아들의 각종 교육활동을 지원할 유아교육진흥원(원장 박선영)이 31일 익산시 옛 춘포중학교 폐교 부지에 문을 연다. 전체면적 3859㎡로 100억원이 투입된 유아교육진흥원은 교육 시설과 생태학습장 등 실내·외

체험학습공간을 갖는다. 유아교육진흥원은 8개관으로 구성된 실내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부모 연수, 교수학습자료 개발·보급, 연구 동아리, 현장교실수업을 지원한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정읍시, 택시운전자 관광가이드 육성 교육

정읍시는 지난 27일부터 30일까지 택시 운수종사자를 관광가이드로 육성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시는 택시업계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대민서비스, 역사와 관광 등의 교육을 실시해 관광가이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소양

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관광홍보요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김생기 시장은 "교육 수료 후 택시관광가이드 인증서를 교부하는 한편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관광가이드 활동에 나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